

# 만남



『성 요셉 성월』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태식 필립보 주임신부

신부님 칼럼	사순절을 지내며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2 -----	6
글 모 음	작은 위로 -----	8
	레지오 마리아란 어떤 단체인가요? -	9
영명축일	-----	10
공동체 소식	-----	11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13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14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5
미사안내	-----	16

**《교황님의 기도 지향》**

- ❖ 일반 지향 - 세계 경제가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따르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기도합시다.
  
- ❖ 선교지향 - 교회가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지역에서 화해와 정의의 표징이 되고 도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 사순절을 지내며

최태식 필립보 주임신부

사순시기는 부활절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시작되었고 4세기경에 40일로 고정되었습니다. 40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시나이 사막에서 방랑, 모세의 40일 단식, 엘리야의 40일 단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40일 단식에서 기원합니다.

초세기 교회에는 사순시기 없이 바로 부활을 맞이하였지만 신자들을 중심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키라고 규정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자발적인 준비를 보고 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림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지금 부터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 미사만 참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투자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모든 취미와 운동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은 운동을 해야 그 실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땀을 쏟아야합니다. 신앙의 기쁨과 행복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시오, 구세주이신 분이 우리를 정화하고 성화하도록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부르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인 것입니다.

사순시기 동안 실행할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① 하느님 말씀에 더 자주 귀 기울임.
- ② 더 집중적이고 더 연장된 기도.
- ③ 단식
- ④ 자선행위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순시기에 우리들도 회개와 보속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가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순결과 마음의 거울을 가리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벗겨내야 하며 그 광채를 되찾기 위하여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각자 자기 양심을 성찰하고,  
엄한 심판대에서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문해 보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지,  
자기 안에 어떤 육적 원욕이 영적 원의를 거슬러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천한 것을 경멸하고 높은 지위를 탐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정한 이익을 얻고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산을 과도하게 늘리고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이의 행복에 시기심을 불태우거나,  
다른 이의 불행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사악한 생각들이 하나도 없다면,  
평상시에 어떤 성격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즉, 허망한 망상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해롭게 하는 것들에서 즉시 마음을 멀리하고 있었는지를  
진지한 성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어떠한 현혹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어떠한 원욕에도 전혀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온통 유혹들로 가득 차 있는 현세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빠지고야  
합니다.

죄를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복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1요한 1,8)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생각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레오 교황의 사순시기강론 3,1)

## ❖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2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35번 ‘어린이처럼’을 부릅니다.

###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당신 빛으로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 주님, 저희의 존재가 당신에게 기쁨이 되듯이 저희 또한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 -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첫영성체



엄마와 딸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르코 복음 10,13-1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반드시 성경을 지참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성경을 다시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세 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어느 분이 아래의 글을 읽어 주십시오.(또는 모두 함께 아래의 글을 읽겠습니다.)

작은 티끌 하나조차도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피조물입니다. 바람과 모래, 별과 사람의 이면을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과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의 눈에서 마음의 눈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만물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생각하며 바라본다면,

잡초를 보며 앞으로 피어날 꽃을 생각하고,  
매일 아침을 새로운 개벽이라고 생각하고,  
바다의 파도를 우주의 심장박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테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의 '영혼의 정원' 중에서>

(진행자)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서로를 자기 안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과 짐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현존(예를 들어서 아이들,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과 자연을 통해서)을 체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 -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00번 '주님과 나는'을 부릅니다.

## 작은 위로

이해인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구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연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구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연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느님  
오늘은 하루 종일  
꿈쩍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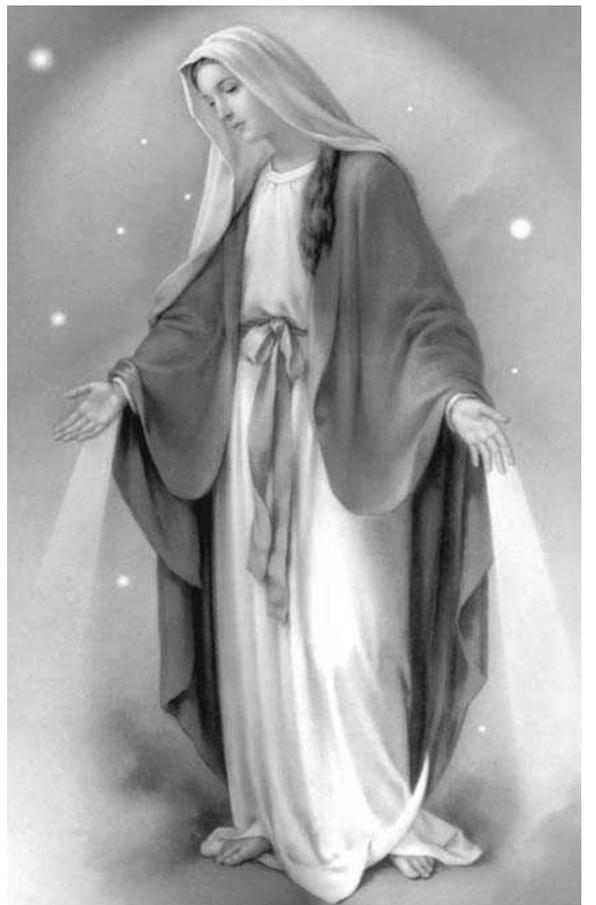
## 레지오 마리아는 어떤 단체인가요?

허명자 가밀라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에서 공인한 평신도 사도직 운동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화 시키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단체와 여러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성모님의 정신, 깊은 겸손,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러움,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 영웅적인 인내심, 티 없는 순결, 천상적인 지혜, 용기와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열망하며 그 높은 믿음의 덕을 따르고자 갈망하면서 그리스도님께서 주신 유언을 사도직 수행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자신이 희생하는 단체입니다.

여러 형제자매님들이시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덕을 따르고자 자신을 촛불에 비교하면서 하느님 대전에 봉헌하는 일상생활이 되어 갔으면 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저의 레지오 단원들에게 자  
비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3일	가 밀 라 (St. Camilla)	허(이)명자 김 은 하	19일	요세피나 (St. Josephina)	문(이)경희
12일	베아트릭스 (St. Beatrix)	Gerding 누리	20일	클라우디아 (St. Claudia)	김 주 희
19일	요 셉 (St. Joseph)	손 대 조 이 현 묵	21일	크리스티안 (St. Christian)	최 성 민
19일	프란츠 요셉 (St. Franz Joseph)	강 지 훈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월 24일	1월 31일	2월 7일	2월 14일	2월 21일
계(€)	886,13	182,10	207,20	247,73	202,82

❖ 미사 전례 ❖

3 월	독 서	제 병 봉 헌	카 페 봉 사
7일	최 화 영 시몬 최 종 근 로사	손 대 조 요셉 강 순 행 말가리다	샬 롬 반
14일	김 경 열 필립보 손 수 희 모니카	홍 경 영 요한 홍 영 숙 유스티나	성령 기도회
21일	정 명 옥 살로메 정 정 숙 안나벨	이 정 수 토마스 박 순 옥 마리아	청 년 반
28일	김 형 응 야고보 이 정 자 쟼마	이 현 묵 요셉 권 오 상 마리아	예 사 모 반

## ❖ 지난달 이야기

- ↗ 1월 31일 미사 후 정기결산총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들과 함께 결산총회를 끝냈습니다.
- ↗ 마산교구 정영규(마르코)신부님께서 2월 7일, 주일미사를 집전해주셨습니다. 신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2월 7일, 주일미사 후 사목협의회회의가 사제관 친교실에서 있었습니다.
- ↗ 하이티 돕기 운동에 우리본당에서는 1486유로 13센트를 교구청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협조해주신 모든 교형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본당 구정행사가 2월 14일, 주일 미사 후 사제관 친교실에서 있었습니다. 설날에 합동으로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위하여 분향을 받쳤습니다.
- ↗ 재의 수요일 미사가 2월 17일 사제관 친교실에서 있었습니다.
- ↗ 2월 21일 우리와 미사를 함께해주신 정운호(베드로)부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많은 사랑으로 사제가 되시는 준비 축복받으시길 기도합니다.
- ↗ 본당 평일미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서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19시로 변경되었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이미용(헬레나) 자매님께서 하이델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십니다.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 故 이강협(베드로) 형제님의 장례미사가 2월 22일, 월요일에 예수성심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협조해주신 모든 교형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 ↳ 3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반부터 사제관 친교실에서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가 있습니다. 정단원과 협조단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주임신부님께서 오슬로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본당미사는 뮌스터에서 유학중인 손님신부님이 집전하십니다.
- ↳ 3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독일사목자 교환사목이 있는 주간입니다. 주임신부님께서 프랑크푸르트본당으로 가시고 저희 함부르크 성당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사목중인 황종현 야고보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 중에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 ↳ 3월 25일 목요일 미사 후에 연령회 창설 첫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당 피정이 Niendorf에서 있습니다. 3월 28일 주일미사는 피정참석자는 피정 중에 있고, 피정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에 사제관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장소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예 비 자 교 리 반	매월 둘째 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분과장	정 명 옥 살로메	040/ 644 8623	
을 뜨 레 아	매월 셋째 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간 사	허 길 조 안드레아스	040/ 555 3441	
반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손 수 희 모니카	04106/ 72958	
주 일 학 교	매주일 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사	0176 7636 2699	
청 년 반	매월 넷째 주 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청소년 분과장	김 영 경 안드레아	0172 546 6886	
성 시 간	매월 첫째 목요일 19시 평일미사와 함께	사제관친교실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r.	매월 셋째 목요일 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단 장	이 명 자 가밀라	040/ 555 3441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9시 45분	사제관친교실	단 장	권 지 연 안드레아	040/ 651 1575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단 장	이 명 자 가밀라	040/ 555 3441
	순교자들의 모후(남성)Pr.	매주 수요일 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단 장	김 치 수 도밍고	040/ 532 4138
성 령 기 도 회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사제관친교실	기도회 회 장	정 명 옥 살로메	040/ 644 8623	
구 역	햇 빛 반	3월 6일(토), 오후 4시, 김순임 안나 자매님 가정	반 장	정 명 옥 살로메	040/ 644 8623	
	비둘기반	3월 14일(일), 주일 미사 후 반장님 가정	반 장	김 점 선 실비아	040/ 713 3139	
	무궁화반					
	살 롬 반					
	등글레반	3월 13일(토), 오후 5시, 이영원 베드로 형제님 가정	반 장	이 영 원 베드로	040/ 527 5311	
	에 덴 반	3월 13일(토), 오후 6시, 김호현 크리스티안 형제님 가정	반 장	오 명 순 마리아	040/ 4503 9612	
	예사모반		반 장	김 영 경 안드레아	0172 546 6886	

❖ 2010년 3월 ❖

날 짜		전 려	행 사
1	월		
2	화		
3	수		
4	목	성시간	19시 평일미사와 함께, 사제관 친교실
5	금		
6	토		
7	일	사순 제3주일	사목 협의회 예수성심성당
8	월		
9	화		
10	수		레지오아치에스 17시 30분, 사제관 친교실
11	목		성령 기도회 16시 30분, 사제관 친교실
12	금		신부님  오늘로 공동체 방문
13	토		
14	일	사순 제4주일	
15	월		
16	화		
17	수		
18	목		레지오월례회 평일미사 후, 사제관 친교실
19	금	성 요셉 대축일	신부님 독일사목자교환사목 (Frankfurt 방문)
20	토		
21	일	사순 제5주일	부 활 판 공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올 드 레 아
22	월		
23	화		환자 영성체
24	수		
25	목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연령회 창설 첫모임 평일 미사 후, 사제관 친교실
26	금		본당 피정 장소: Niendorf
27	토		
28	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반 장 모 임 주일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청 년 모 임 주일미사 후, 사제관친교실
29	월		
30	화		
31	수		
비 고		28일 주일 미사는 오후 3시, 사제관 친교실에서 피정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장소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당신부            최 태 식   필립보  
사목회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주 소                Danzigerstrasse 62,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www.mannam.de            E-mail: korea-ham@mannam.de

###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발 행 인            최 태 식 필립보 신부            egoeimi73@hanmail.net  
편 집 인            김 진 호 프란치스코            foktac@yahoo.co.kr  
                          이 은 우 데레사                eun\_dendro@hotmail.com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15분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수·목요일 19시

장소 : 사제관, Danzigerstrasse 62,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태성현(바르톨로메오), H.P : 0172 456 2278

###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6, 49074 Osnabrück

회장 : 설윤자(헬레나), H.P : 0176 3829 4986

###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12a

30625 Hannover

회장 : 문동철(분도), Tel : 0511/ 53889911